

## 스스로 과제를 부여하다니, 난 아직 덜 힘든 것 같다

경영학부 20학번 김○○

### ○ 에세이 작성 동기

지난 학기가 지나고 이제 이번 학기의 끝도 다가오고 있다. 처음 대학에 들어오고 지난 고등학교와는 달리 공부를 미리미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변 분들에게 공부방법을 여쭙보고 스스로에게 적합한 공부는 어떤 것일지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찾은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을 융합한 것으로, 단 하나의 방법만으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이 공부 방법의 경우 내가 경영학과라는 점에서 다른 공과대학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기본 원칙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공부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에세이는 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론보다는 학습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방법은 어디에나 있었다. 주변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찾기 쉽다. 바로 교수님들이다. 교수님들께 그 과목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쭙보는 것, 그것 이상으로 그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자신에게 접목시키고, 현재의 공부에 적합하게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나만의 공부방법이 생긴다. 남은 것은 이를 실행하는 것뿐이다.

###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

가장 먼저 스스로 강의 별로 과제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강의를 들으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필기를 한다. 이후 그 강의 내용에 대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질문 내용은 어려울 필요는 없다. 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이후 이를 마치 서술, 논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답을 달아보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평가를 받는 방식은 시험이나 리포트 제출이다. 공부할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 경우 시험이나 리포트를 작성하기 편하다.

예를 들어 경영학입문 강의에서 마케팅 4P 전략에 관해 공부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주의 나에게 던지는 과제는 간단하다. “마케팅 4P 전략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답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 답을 구하면서 그 주의 강의는 나의 방식으로 하나의 글로 남는다. 교수님

중에서도 이러한 과제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렇다면 이 과제를 수행하고 교수님께서 주신 과제를 푸는 것이 좋다. 지난 학기의 기준으로는 거의 내가 쓴 답을 그대로 옮겨적어도 될 정도였던 것 같다. 답을 적으며 스스로 이해가 가지 않거나, 왜? 라는 질문이 생기면 교수님들께 질문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다 보면 강의 중에서 나온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스스로 알아보며 배움의 영역을 넓히다 보면 어느 사이에 강의에서 배운 내용은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과제를 만들어 해결하는 것은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교수님들께서는 시험에 출제하신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이미 나만의 답을 만들어두었다면 남은 것은 그 내용을 기억해두고 시험지에 적으면 된다. 지난 학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꽤 높은 정확도로 시험문제에 나왔던 것 같다.

시험은 결국 나의 이해 정도를 높여주는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면 리포트는 절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학기에 리포트 제출이 과제였던 과목들의 경우 리포트 작성에 시간이 거의 투입되지 않았다. 내 생각을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적은 답안이 곧 강의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옮겨적으면 된다. 물론 리포트에 특정한 방향성이 있으면 다소 수정이 필요하겠으나, 근본적으로 내용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과제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후에는 더욱 세부적인 팁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우선 교과학습만이 전부가 아니다. 비교과적인 학습도 많으며 이로부터 얻는 것이 많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교과 강좌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이 적은 온라인 강의들을 미리 신청하고 수강한다면 자신의 다른 역량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매일 접속해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고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것들을 신청해보자. 저학년이라고 해서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듣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한다. 실제 취업 전선에 선 3,4학년들에게 맞춰진 강의이나, 1,2학년들도 듣고 나면 나의 진로에 대해 설정하고 준비하는 것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 듣기만 하는 강의 형식도 좋지만 실제로 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참여해보자. 이번에 디자인 씽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량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항상 우리는 창의성과 표현력이라는 말을 듣지만 이를 실제로 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이론일 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의면접이나 조별 프로그램들을 신청해서 이러한 역량을 키워보자.

마지막으로 주변 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 전에 이에 대해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비슷한 또래도 좋지만 경험이 있으신 교수님들이나, 컨설턴트분

들이 우리 학교에 많다. 이런 분들과 만남을 통해 같은 또래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보이는 만큼 나의 세상이다. 나의 세상의 넓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며, 이 말은 역량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이다. 무엇보다 학교에 아는 분이 많아지면 편하다.

###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지난 학기 성적은 4.23점이었다. 18학점을 들었다. 코로나로 인해 점수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을 보면 그래도 높은 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내 안에서 찾은 것 같다. 나는 전보다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해 더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이런 나의 이해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생겼다. 이해 정도가 높아지니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긴 것 같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여 나의 진로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 수 있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학 이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었다. 그러나 다양한 직무들의 현직자분들을 뵈고 모의 면접도 해보며 어떤 방향이 나에게 적합한지 이해하게 되었다. 대학일자리센터나 학생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으며 조언을 받기도 한 결과이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가 명확해질수록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진다.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어떻게 공부해야 나중에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들이 생긴다. 더 작게 들어가 보면 이런 명확해진 목표는 현재 내가 하는 일을 더 성실하고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고 하고 싶은 것도 다양해진다. 지난 방학에 파이썬을 배우고 나니 이번 학기의 경영통계학을 배우는 것이 흥미롭다. 즐기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그 대학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온라인으로도 대학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 ○ 추천 이유 및 소감 등

나의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적이 오르고, 과제나 시험이 쉬워지며, 역량이 늘어나고, 진로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결국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요소이다. 결국, 내가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방법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다. 과제를 만들고, 비교과에 참여하고, 주변인에게 물어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사람별로 적합한 것들이 다르다. 그러나 나의 방법이 나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대부분 적용할 만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를 읽는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도 이를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용이다. 좋은 말은 많고,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계획은 필요 없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

신의 잠재적 가치를 믿고 자신에게 확실하게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노력은 힘들지 않고, 오히려 다시 나에게 활력을 주는 요소이다. 즐겁게 사는 것은 곧 열심히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 역시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열심히 살고자 한다.